

“향토유통업체 빅마트 살려 달라”

입점상인·직원들 “희생 가능성 크다”

법원에 ‘법정관리’ 희망 진정서 제출

광주·전남 유일의 향토유통업체인 빅마트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들여 달라는 진정서 법원에 제출돼 주목된다. 특히 다음주께 빅마트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광주지방법원과 빅마트 등에 따르면 빅마트 입점상인과 직원 34명은 최근 “빅마트의 법정관리가 좌절되면 채권은행이 빅마트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직원들의 임금과 입점 상인들의 납품

대금 20여억원의 지급이 불투명해진 다”며 광주지법에 법정관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빅마트는 자산이 400억원인데 비해 부채는 270억원에 불과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큰 기업”이라며 “하상용 대표도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채무변제 기간이 늦춰지면 최단기간에 채무금을 갚아 영세상인과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역 경제계에서도 향

토 유통업의 부류인 빅마트마저 무너지면 영세상인과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법정관리를 통한 조기 경영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향토 유통업체인 빅마트는 지난 1995년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 첫 매장의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17개 매장을 개장·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매년 경상이익의 10%가량을 무등산 공유화 기금·주요한 살리기 기금·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에 환원, 사회·문화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기업형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공세에 밀려 2007년 2월 입점업체와 직원들의 승계를 조건으로 롯데쇼핑에 14개 매장을 넘겼다. 지난해 12월에는 남은 3개

점의 식품매장까지 롯데쇼핑에 임대해 주고 북구 매점점을 편성아웃렛 빅시티로 전환해 의류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했지만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10일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빅시티에는 나이키·토스토키·리코코다일 등 18개 의류 브랜드가 입점해 영업 중이며,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 없이 10~15% 안팎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업하고 있다.

빅시티의 한 입점상인은 “빅마트의 자산과 하 대표의 의지를 보면 희생 가능성은 높다”며 “법원이 영세상인들의 처지와 친체된 지역경제를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기차 멋지네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0 전기자동차 및 전장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전기차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 1758P... 2년래 최고치

외국인 매수 공세...원·달러 환율 1202.50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폭발적인 규모로 유입되면서 코스피지수가 지난 4월의 전고점을 뛰어넘고 단숨에 1,760선에 육박했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2.93포인트(1.32%) 오른 1,758.01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6월18일 1,774.13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알파뮤브기업 알코아에 이어 반도체 대표기업 인텔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회복된 투자 심리가 우리 증시에서도 이어져 코스피지수는 1,750선 위에서 출발했다.

오후 들어 기관투자자들이 순매수 규모를 줄여나갔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순매수 폭을 넓혔고, 1조원이 넘는 프로그램 순매수까지 유입되면서 지수는 한때 1,760선을 웃돌기도 했다.

이날 외국인 순매수 규모 9047억원에 비해 9월 18일 이후 최대치고, 프로그램 순매수 규모 1조53억원에

2008년 9월 2일 이후 최고값이다. 코스닥지수는 5.08포인트(1.02%) 오른 502.87에서 개장했지만 일부 기관과 개인이 팔자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줄여 2.18포인트(0.44%) 오른 499.97로 마감, 500선 탈환에 실패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에 1,200원선을 밑돌다가 역의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202.50원으로 나뉘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에 비해 10.00원 내린 1,202.50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5만원권을 4246억원 풀려 작년보다 3배 증가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광주·전남 지역에 공급한 은행권 가운데 5만원권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가 이 지역에 공급한 화폐(총발행액)는 1조137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조838억원)보다 535억원(4.9%) 증가했고 회수 화폐(총환수액)액은 1조1808억원으로 201억원(1.7%)이 증가했다.

권종별 발행 비중은 지난해 6월 23일 새로 발행된 5만원권이 37.4%를 차지하면서 1만원권의 비중이 83.4%에서 59.1%로 크게 작아졌다.

특히 5만원권은 지난해 상반기 1389억원(12.9%)에서 4246억원(37.4%)으로 2857억원 증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지자체 金庫지기들 노심초사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에 光銀·농협 등도 촉각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는 등 지자체단체들의 재정난이 악화하자 시금고를 맡은 은행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금고를 분할하고 있는 농협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광주은행 등도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최근 지자체 금고 동향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금고를 맡은 농협은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에 지급 못하는 것이지 시금고에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니어서 타격은 없다”면서도 “자체 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자체의 금고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전임 집행부가 관공 신도시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책정했던 관공 특별회계에서 5천200억원에 깨어 호화 신청사를 짓는 등 일회회계 예산으로 써버려 예산이 바닥나자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은행들은 성남시처럼 지자체가 회계를 전횡한 사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시금고에서 돈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

가 경제살리기 정책에 부응해 지자체들이 재정지출 정책을 펴면서 재정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였으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도 9곳이나 됐다. 또 작년 통합재정지수는 전년 대비 27조원이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금융권은 광주·전남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현재까지 금고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연합뉴스

자금세탁 의심거래 10만여건

올들어 신고 급증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보고 불법 재산으로 추정되거나 불법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하기 위한 자금세탁으로 의심해 금융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은행·보험·증권 등 각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혐의거래' 건수

는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10만 4200건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신고건수가 13만6300건인 점에 비춰볼 때 급증한 셈이다. 상반기에만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01년 11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한 이래 처음이다.

신고건수는 2002년 300건, 2003년 1700건, 2004년 4900건, 2005년 1만 3500건, 2006년 2만4100건, 2007년 5만2500건, 2008년 9만2100건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된 혐의거래 7711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6046건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넘겨 정밀 조사토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들 혐의거래에 대해 조세포탈, 불법 외국환거래,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내용을 붙여 기관에 이첩하고 있다.

특히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나 번칙 상속·증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매출 누락 등으로 세분해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신용보증 이사장 공모합니다

도, 27~30일 접수

전남도는 재단법인 전남신용보증재단의 현 이사장 임기가 만료돼 제4대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사장 응모자격은 신용보증관련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1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이사관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다.

응모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응모원

서와 자기소개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서, 관련 분야 자격증 및 학위증명서 등이다.

응모지원서는 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도청 경제통상과에 접수해야 한다.

전남도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자격 기준과 경력 등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업무수행능력, 경영개념 의지, 국가관, 청렴도 등에 대한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장필수기자 bungy@

KB국민은행장 직무대행

최기의 부행장 선임

KB국민은행 이사회는 최근 시내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최기의 이사 부행장을 은행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행장 대행은 KB국민은행 수원 영통지점장과 인사부장, 개인영업본부장, 여신그림 부행장, 전략그림 부행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한불화장품 코랑스사업부에서 방문판매 대리점(지사장)을 모집합니다.

소규모 자본이 필요없는 수익성 높은 특종 화장품

Phytotherapy

다문화가정지원사업 후원사업자 지정판매처

문의: 02-639-0374 ~ 02-639-0377

이태리 좌탁,식탁 특별전 50%▶

이태리 좌탁,식탁 특별전 50%▶

이태리 좌탁,식탁 특별전 50%▶

이태리 좌탁,식탁 특별전 50%▶

이태리 좌탁,식탁 특별전 50%▶